

조도다이라의 식물, 동물, 조류

조도다이라의 풍부한 환경은 다양한 식물, 동물 그리고 조류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는 들풀이 습원과 늪 주위에 꽃을 피우고, 낙엽수와 침엽수 원시림이 일대를 뒤덮습니다. 여름에는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모이고, 마카크 원숭이나 반달가슴곰 같은 토종 포유류가 이 근처 외딴 삼림지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.

조도다이라의 식물

조도다이라의 습원과 늪, 삼림은 아고산성의 이끼, 들풀, 낙엽수, 침엽수, 관목의 서식지입니다.

이 주변의 삼림은 대부분 아고산성 침엽수림입니다. 잣나무(아즈마 잣나무; *Pinus parviflora*)는 아즈마 연봉에 원생하는 백송의 아종으로 분재에 널리 사용되는 종입니다. 구상나무(*Abies mariesii*)는 혼슈 북부에 있는 여러 산에 원생하는 내한성 상록수입니다. 조도다이라 주변에서는 많은 구상나무가 서쪽을 향해 자라고 있는데, 가지는 동쪽으로 뻗고 있어 서쪽 방향에서 부는 겨울의 강풍으로 인해 깎발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.

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낙엽수림은 사스래나무(*Betula ermanii*)로, 우아한 구릿빛의 나무껍질과 가을에 밝은 노란색으로 단풍이 드는 하트 모양의 잎이 특징입니다.

우기(6월 중순부터 7월 하순)에는 눈처럼 하얀 황새풀(*Eriophorum vaginatum*) 풀숲과 분홍색 벨모양 이와카가미(*Schizocodon soldanelloides*) 꽃이 습지대 곳곳에서 자랍니다. 이 시기에는 작고 하얀 꽃잎을 가진 진구르마(*Geumpentap et alum*)도 꽃을 피웁니다. 둥근 잎을 가진 식충식물 끈끈이주걱(*Drosera rotundifolia* L.)은 습지대의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데, 7월부터 8월에 걸쳐 그 끈적끈적한 덩굴손으로 곤충을 포획합니다. 트럼펫처럼 생긴 보라색 과남풀(*Gentiana triflora* var. *japonica*) 등의 원생 고산식물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 초에 걸쳐 꽃을 피웁니다.

홍만병초(*rhododendron brachycarpum* f. *nemotoanum*)는 화관 모양의 연분홍색 꽃을 피우는 희귀한 원생 상록관목입니다. 7월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오케누마 늪이나 우사기다이라 근처에서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꽃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홍만병초는 1903년 아즈마 연봉에서 발견된 만병초(*rhododendron brachycarpum*)의 아종입니다.

조도다이라의 동물

조도다이라에는 일본야마네(설치류의 일종), 일본담비, 족제비, 오코조, 산토끼 등 많은 토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큰 동물로는 본토여우, 일본산양, 일본원숭이, 반달가슴곰 등과 같은 토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

조도다이라의 새

여름철에는 많은 새들이 조도다이라의 숲과 습원, 늪을 서식지로 삼습니다. 새들은 이곳에서 번식해 둥지를 틀고, 이 근처의 풍부한 곤충과 유충, 종자와 화초를 먹이로 먹습니다.

작까마귀와 작은 제비의 아종인 흰털발제비는 조도다이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작까마귀는 이 근처에 1년 내내 서식하는 새로, 초콜릿 같은 흑갈색에 흰 반점의

깃털이 특징입니다. 여름에는 조도다이라의 늪과 습지대에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같은 물새가 서식합니다. 붉은가슴올새, 멧쟁이새, 유리딱새, 쪽독새 같은 야생조류가 지저귀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지만, 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